

## PART 03



### 학생설계전공 이수 시기

- |                                      |    |
|--------------------------------------|----|
| 1. 보험계리학,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원천_ 보험계리학 | 35 |
| 2. 나의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전공_ 융합커뮤니케이션  | 41 |
| 3. '평범, 그 주변 어딘가'에 대해 공부하기_ 공연예술인문학  | 49 |
| 4. 학생설계전공,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_ 금융공학     | 57 |

## 1 CHAPTER

# 보험계리학,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원천

보험계리학 전공

### ■ 왜 '학생설계전공' 이어야 했을까?

2010년, 자랑스럽게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일원으로 입학했습니다. 그저 경제가 좋고 금융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절 경제학과로 이끌었습니다. 교내 재테크동아리인 SWIC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금융상품 중, 특히 수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모델인 보험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만 제 전공인 '경제학'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전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강대에는 보험계리학과가 없고 보험계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통계학과나 응용통계학과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하나의 전공만으로 보험계리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은 경제학의 효용 이론에서 출발하여 수리적으로 구체화되었고 이 지식은 보험법의 테두리에서 경영되고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이해할수록 또 다른 전공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경영학도 수학과, 법학도 아니었습니다. 제겐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한 전공이 필요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타 경쟁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공 수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계학과도 행정학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목을 조합하여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 있는 '학생설계전공'을 활용하면 진로에 맞는 전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험계리학'이었습니다. 경제학, 경영학, 수학, 그리고 연계전공과 교양과목 중 일부를 수강한다면 보험계리 전문가의 진로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보험계리학 학생설계 전공을 신청하였고 서강대학교의 첫 번째 보험계리학 전공자가 되었습니다.

### ■ '보험계리학'이란?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존재하는 리스크가 고도화되고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게 위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주요 리스크관리의 기법인 보험은 이러한 수요의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보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험계리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삼는 보험계리사는 고급 전문직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전공이 아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등 경제에 대한 통찰력과 재무와 투자에 대한 능력, 금융수리와 보험수리를 다루기 위한 수리통계적 감각을 쌓아야 비로소 훌륭한 보험계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학생설계전공, 보험계리학은 경제, 경영, 수학, 그리고 법과 컴퓨터가 합쳐진 새로운 전공입니다.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해 교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설과목 중 보험계리학과 관련이 있는 수업을 모아 아래와 같이 전공을 구성하였습니다.

### ■ 보험계리학 설계전공 과목구성

전공	과목구성	
수학	필수 (전공예비)	미적분학I, 미적분학II
	선택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다변수함수, 통계학입문, 확률론입문, 금융수학, 응용통계학 및 실습
경제학	선택	경제학원론I, 경제학원론II, 경제정보분석,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I, 금융경제학
경영학	필수	회계학원론, 재무관리, 보험학원론
	선택	투자론, 금융리스크관리, 금융기관론, 생명보험, 해상보험론, 중급회계I, 중급회계II
컴퓨터공학	필수 (전공예비)	C언어
공공인재	필수	보험과법

위 표와 같이 수학분야에서는 보험계리학에서 요구되는 미적분과 확률통계지식을 포함하였고 경영학에서는 회계, 금융 및 보험관련 과목을,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개괄적인 경제학 과목과 금융관련 과목, 그리고 보험법과 C언어를 포괄하였습니다.

한 전공에 치우치지 않고 깊이 있게 여러 전공을 조화시켰고 보험계리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계리적 지식을 탐구할 수 있었고 나만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흥미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 학생설계전공만의 장점

저의 학생설계전공, 보험계리학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계리 전문가가 되기 위한 폭 넓은 지식의 함양입니다. 교내 여러 학과 내에 개설된 보험관련 수업들을 보험계리사라는 목표 아래, 체계적으로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공공인재 연계전공에서 열리는 ‘보험과 법’을 수강하며 상법과 보험법이 어떻게 다른지와 현실에서 보험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였고 경영학과의 ‘생명보험’을 들으며 보험의 한 분야인 생명보험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원래 전공인 경제학과만으론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 계리에 필요한 경영을 위해 ‘경영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던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 했다면 어땠을까요? 보험계리사를 꿈꾸는 저의 또 다른 전공이 보험계리가 아닌 경영학이었다면 저는 제 적성 및 직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인사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계리관련 다른 과목을 수강할 기회를 잃게 되었겠죠. 학생설계전공은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자신이 원하는 커리큘럼 하에 학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 보험계리학 설계전공 과목이수계획표

	1학기	2학기
1학년	미적분학 I 경제학원론 I 회계학원론	미적분학 II 경제학원론 II 회계학원론
2학년	미시경제학 선형대수학 통계학원론	거시경제학 통계학원론 계량경제학 금융수학
3학년	보험학원론 다변수함수 보험과 법	투자론 확률론입문
4학년	생명보험 응용통계학 및 실습	해상보험론

위 표는 제가 학기별로 수강 예정인 보험계리학 과목들입니다. 본인이 만들고 계획한 전공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리 지식 이외에도 ‘스토리텔링’에서 큰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며 기업은 대학생들이 스펙이외에도 스토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해당 분야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학생설계전공은 큰 힘이 됩니다. 보험계리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에게 보험계리학과를 만들어 전공으로 삼았다는 내용만큼 좋은 이야기는 드물기 때문이지요. 컨설팅회사, 대기업, 외국계 기업 모든 면접에서 항상 듣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험계리학과를 만들게 되었나요?” 많은 면접관들이 저의 보험계리학 창설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학생설계전공’이란 양념이 잘 버무려진 저의 스토리를 긍정



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학생설계전공은 스스로의 지식 이외에도 자신만의 진로와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 ■ 학생설계전공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유망직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안전문가가 될 수도, 빅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공만으로 이러한 분야에 뛰어들기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는 마케팅은 물론이거니와 통계와 컴퓨터에 관한 지식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공이 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을까요?

학생설계전공은 모든 면에서 열려있습니다. 학과 구성에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에 어울리는 조각조각 전공들을 찾아 모자이크처럼 자신만의 학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과목들을 들으며 원하는 꿈에 다가가는 대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 나의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전공

융합커뮤니케이션 전공

### ■ ‘융합커뮤니케이션(Integrated Communication)’이란?

융합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을 간 학문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려는 학문입니다.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이나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조직의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Public Relations, 직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내커뮤니케이션, 음성 및 행동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까지 사회 어디에나 커뮤니케이션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은 최근 들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커뮤니케이션 주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미디어의 확장 덕분에 커뮤니

케이션에서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들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융합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여러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융합 커뮤니케이션 전공은 심리학, 신문방송학, 경영학, 국어국문학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심리학 전공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주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동기 및 정서 심리학, 인지 심리학, 사회 심리학 등의 과목들을 구성했습니다. 신문방송학 전공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를 공부하는 PR과목인 쟁점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 마케팅PR 등을 이수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광고 과목으로 IMC캠페인 실습,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을 이수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HR과목인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이론과 경쟁상황 속에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공부하는 마케팅 과목인 마케팅원론, 국제 마케팅론 등을 이수했습니다.

## ■ 융합커뮤니케이션 설계전공 과목구성

전공	과목구성	
신문방송학	필수	PR학개론, 광고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조사론
	선택	마케팅PR, PR캠페인기획실습, IMC캠페인실습, 쟁점 및 위기커뮤니케이션, 스토리개발 및 플롯구성, 융합적문제해결과커뮤니케이션
심리학	선택	일반심리학, 심리통계, 사회심리학,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언어심리학, 동기 및 정서심리학, 집단상담, 조직심리학, 광고 및 소비자심리학, 자기표현의심리적기초
	필수	조직행동이론, 마케팅원론, 소비자 행동론
경영학	선택	인적자원관리, 전략경영, 조직구조와 전략, 마케팅 최신주제 및 사례 연구
	필수	문장과 수사

## ■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게 된 계기

학생설계전공에 대해 알기 전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할까 생각도 했지만 좀 더 심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학까지 3개 전공을 이수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상황에서 3전공을 모두 이수하는 데에는 이수 학점 수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10학기 까지 다닐 수는 없고, 포기하고 신문방송학만 이수할까 생각하며 복잡한 마음에 요람의 전공 설명 부분을 이리저리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설계전공을 발견했고 바로 “이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융합 커뮤니케이션으로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 싶었던 데에는 몇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전공은 입학 전부터 결정했지만 재학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복수전공은 대학생활 동안의 고민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전공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전공이 저만의 독특한 색깔을 내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직접 이름과 커리큘럼을 설계할 수 있고 단 한 명의 학생만 이수하는 학생설계전공은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는 융합형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동안 관심사가 다양했습니다. 전공과목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기보다는 다양한 전공과목을 접하며 지적인 호기심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족시키길 원했습니다. 법학, 경제학, 경영학, 철학, 정치학 등의 전공과목을 교양수업처럼 들던 저는 복수전공에서도 다양한 학문을 접하길 원했습니다. 때문에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심리학과 신문방송학, 경영학 학점을 상당 부분 이수한 상태였습니다. 학생설계전공을 통해 복수전공을 고민했던 심리학과와 신문방송학과뿐만 아니라 경영학, 국문학 전공과목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학생설계전공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전공별로 장점들만 모아서 따로 공부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큰 고민 없이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학생설계전공만의 특별한 장점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면서 느낀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는 맞지 않는 과목들도 많고 전공 분야이지만 관심사가 다른 과목을 공부해야 하곤 합니다. 반면 학생설계전공은 본인이 직접 설계한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다 보니 아무래도 타 전공에 비해 강제로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육 과정이 자신의 비전에 따라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주어진 주입식 교육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입 전까지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대학에 들어와서까지 이어집니다. 전공 안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틀 자체는 주어진 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학생설계전공을 통해 자기가 직접 전공을 설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이 공부를 통해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등 크고 작은 물음에 스스로 대답하게 됩니다. 전공을 설계하는 그 자체가 자기 주도적인 공부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설계한 전공을 이수하면서도 내가 직접 설계한 전공을 이수하므로 높은 동기와 능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진로설계에 대한 이점입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학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전공과 졸업 후의 진로가 꼭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취업



하길 원합니다.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이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타 전공에 비해 유리합니다.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본인의 비전을 기반으로 설계된 전공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이나 꿈에 맞는 진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반 전공의 경우, 고민 끝에 선택한 전공이더라도 나에게 100%맞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점점 공부할 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와 관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자신의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전공은 그 학생의 대학생활을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전공을 이수했다는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나 전문성을 드러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 전공을 이수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고민하고 설계했다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장기간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고민 끝에 전공을 직접 설계했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 본인이 진정성 있는 비전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향후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본인의 열정과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 ■ 학생설계전공을 희망하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

첫 번째, 교수님들께 조언을 청하세요. 설계전공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생각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특히 해당 학문의 권위자이신 교수님들의 의견 없이 독단적으로 전

공을 설계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의 통과 가능성을 낮출뿐더러 향후 완성되었을 전공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공과 관련된 과의 교수님들을 찾아 뵙거나 외국 대학에 유사한 학과가 있는 경우 해당 커리큘럼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준비를 일찍 시작하세요. 학생 설계 전공은 그 과정이 긴 프로젝트입니다. 전공과 커리큘럼을 설계해야 하고, 학과장님과 교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 수정 및 권고 사항을 반영해야 비로소 전공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들을 이수해야 합니다. 준비부터 시작, 마무리까지 몇 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인만큼 관심이 있다면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학년이 된다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실 가능성을 염두 하세요. 학생설계전공은 학생 본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예체능이나 의학계열 전공이 없는 우리 학교인 만큼, 공부할 수 있는 분야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공을 설계할 때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야 안에서 독창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과목을 설계하기보다는 있는 과목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로보다는 본인의 비전에 따라 설계하세요.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이 진로에 더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설계전공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로계획의 경우 졸업 전까지 여러 번 바뀌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장기간 발전시켜온 본인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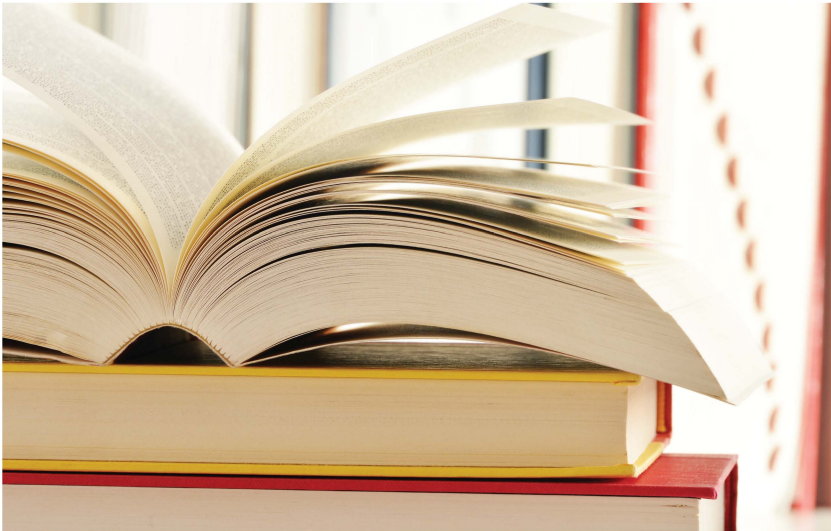
의 경우에는 진로와 달리 상황이나 순간적인 흥미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가변적인 진로보다는 잘 변하지 않는 본인의 비전에 따라 전공을 설계하는 것이 실제 이후의 전공 이수에 있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설계전공의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3 CHAPTER

## ‘평범 그 주변 어딘가’에 대해 공부하기

### 공연예술인문학 전공

2011년 가을, K관 201호.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연강으로 배정되는 바람에 점심도 거르면서, 저는 정태진 교수님의 <뮤지컬의 이해>를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졸음을 부르는 나른한 시간대에 3시간 수업 심지어 영어 강의. 막연히 뮤지컬을 즐겁게 관람하는 줄 알고 수강신청 했던 학생들에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인종 문제와 <미스 사이공>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논하는 이 수업은—소위 ‘제대로 뒤통수를 친’—전공만큼 어려운 교양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 수업이었지만, 뮤지컬을 비롯한 공연예술에 단지 막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오히려 작품의 서브텍스트를 통해 배우는 묘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후 이 수업을 계기로 공연예술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어졌지만 예체능이 없는 서강대학교에서 관련 커리큘럼을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1전공이 화공생명공학인 공학도에게 예술 관련 학문을 접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찾은 것이 학생설계전공입니다.

## ■ 공연예술인문학이란?

안녕하세요, 저는 설계전공으로 공연예술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휘영입니다. 공연예술인문학은 글자 그대로 공연예술을 인문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전공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최근 트렌드로 크게 떠오르며, 스티븐 잡스가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기술 속의 인문학을 필두로 모든 분야에 인문학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 중에서도 공연예술은 그 기원을 논할 때 인문학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희 교수는 『예술, 인문학과 통하다』라는 책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뮤지션과 양을 제물로 삼아 제의를 진행하는 주술사를 '시공간적으로 먼 광경이지만 아주 유사한 분위기'라 언급하며, 원시 시대에 종교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 제의 문화가 오늘날 대중이 열광하는 공연예술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과 신의 중재자 역할을 자칭하며 인간의 감정을 심도 있게 접근해야 했던 주술사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인문학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예술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만 보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배제된, 단순한 즐길 거리로서의 공연예술이 많아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공연예술계도 잘 알고 있었는지 최근 예술과 인문

학을 합치하려는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국립극장의 경우 '공연, 인문학과 놀다'라는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두산아트센터도 '두산인문극장'이라는 공연장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한 공연예술인문학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인문학적 소양을 충실히 쌓은 내실 있는 공연예술의 기획 및 개발을 지향합니다.

## ■ 공연예술인문학의 커리큘럼

저는 우선 신문방송학 전공의 공연예술트랙과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에서 개설된 과목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티브한 표현과 사고방식이 필수인 요즘의 시의성을 충분히 반영해 아트앤테크놀로지의 문화 및 창의성 관련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연극입문>, <공연의 기획과 경영>, <뮤지컬 창작기초>와 같은 과목으로 공연예술 필드에 대한 기초와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고, <인문학과 창의성>, <문화컨텐츠 기획 및 개발>, <슈퍼히어로와 미국 문화>와 같은 과목으로 창의적인 측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목을 포함했습니다. 인문학 파트로는 철학 전공을 통해 예술과 철학을 논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했고, 종교학 전공을 통해 예술과 관련 지어 사회가 종교를 다루는 지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형이상학>, <미학개론>, <예술철학> 그리고 <신화의 이해>, <종교와 예술>, <종교심리학>이 제가 설계한 인문학 영역에 속한 과목들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구성을 요하는 학생설계전공 기획서의 취지에 맞

계 학년별로 큰 주제를 잡아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로의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1학년 때는 기본적인 인문학 소양을 쌓게 하며, 2학년에는 예술과 형이상학의 관계나 신화의 이해부터 종교 및 인류와의 관계를 탐구하며 공연예술의 기초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3학년 때는 우리 사회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인문학을 탐구하고 공연예술의 제작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4학년 때는 예술과 인문학이 서로 어떤 관계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학문인지 배우고, 공연예술의 발전 방향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 ■ 공연예술인문학 설계전공 과목구성

전공	과목구성	
신문방송학	필수	연극입문, 공연의미학과이론, 연기와연출, 공연의기획과경영
	선택	세계연극사, 단막극연출, 뮤지컬입문, 뮤지컬창작기초, 스토리개발및플롯구성
철학	선택	철학개론, 서양철학사, 형이상학, 인식론, 미학개론, 철학적인간학, 예술철학
종교학	필수	종교심리학
	선택	종교의이해, 유대교의이해, 신화의이해, 종교인류학, 종교와젠더, 종교와미디어, 종교와예술
아트앤 테크놀로지학	선택	창의예술개론, 문화콘텐츠기획및개발론, 인문학과창의성, 문화경영및마케팅, 문화소비론, 슈퍼히어로와미국문화

### ■ 학생설계전공만의 매력과 장점

이 과정이 결코 제 뜻대로 술술 풀리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막연히 예술경영이 해보고 싶어 '공연예술경영학'으로 신청했으나 이 분야에 대한 공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급하게 구성된 커리큘럼과 미흡한 에세이로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부터 공연예술 자체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공연예술의 텍스트가 인문학과 연결되는 점점을 파악해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이나마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공연예술과 인문학을 동시에 다루는 전공이 개설된 대학이 없어서 해외 대학에서 이미 보편화된 각 대학의 Performing Arts & Humanities 전공 커리큘럼을 찾아 정리하고, 예술철학에 관련된 책을 찾으며 에세이의 초고를 썼습니다. 그 후 학교 전공요람 전체를 뒤적이며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수업, 이 전공과 어울릴만한 수업, 이 전공에 꼭 필요한 수업들을 며칠간에 걸쳐 찾아 87학점의 커리큘럼을 구성했고 8학기에 걸쳐 이수할 수 있는 커다란 실라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학생설계전공이 주는 가장 강력한 한 방은 우선 자신이 설계한 전공 자체보다 그 전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에 있습니다. 막연히 고등학교 때 문/이과를 나누어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과 달리 설계전공은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 경우엔 2년에 걸쳐 그것을 충분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인문학이 지루하고 딱딱한 학문일 것만 같아 거들떠도 안 봤는데, 제가 공부하고자 하는 학문에 인문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깨닫고는 인문학을 직접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누가 시켜서 이걸 공부해라 저걸 공부해라가 아닌, '내겐 지금 이 공부와 저 공부가 필요하다'를 깨닫고 직접 자료를 찾아 공부한다는 즐거움 이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이거니와 거기서 얻는 성취감과 희열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또한 설계전공의 매력 중 하나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이 1인 전공이 우리 학교엔 없기에 타 대학 및 외국 대학의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연예술인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전공으로 삼는 대학이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외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NYU; Tisch School,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The Arts Theatre 등 명문대의 예술대학 관련 커리큘럼을 찾아보았고 직접적으로 공연예술인문학을 가르치는 대학의 커리큘럼도 꼼꼼히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예술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학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점 역시 흥미로운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고 나니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제 손으로 구성된 전공에 대한 애정입니다. 단순히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과 달리 이 전공으로 듣는 모든 수업은 반드시 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깃들어요. 실제로 한 학기를 설계전공 커리큘럼에 따라 18학점을 구성해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학점은 그 전의 학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게 나왔고, 준비해야 할 프로젝트와 조모임 및 공부량이 그 전보다 배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기대하며 즐길 수 있던 것은 제게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및 대외활동 탐색 시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언급

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엔 2014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인 LG 아트센터에서 1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당시 그룹 면접에서 면접관 분들이 제 설계전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면접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관련업계 실무자를 만났을 경우에 전공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이 전공에 대해 제가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했습니다.

### ■ 학생설계전공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설계전공은 단순히 '승인 받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 후에 나 자신이 내 전공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감이 있는 또 다른 전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 신청에 앞서 자신이 설계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사전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련 서적을 찾아 읽는 것은 기본이고, 외국의 케이스, 국내의 케이스를 찾으며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시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려는 학문의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파악하는 작업 또한 요구합니다.

물론 단순히 공부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제 경우엔 매주 한편 이상의 공연예술을 접하며 공연에 대한 에세이를 써 포트폴리오를 만들





## 학생설계전공,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

### 금융공학 전공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경제학 및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기용입니다. 제가 이수하고 있는 학생설계전공은 금융공학(Finance Engineering)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융공학에 대해 생소할 수 있어 간단히 소개를 하면 금융공학이란 일반적으로 금융 자산 및 파생상품을 설계하고, 가치를 평가하며, 금융기관의 위험을 관리하는 등 제반 금융 및 경제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수학적 방법과 통계이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첨단 학문입니다.

### ■ 금융공학 학생설계전공에 대한 소개

금융공학은 경제학, 경영학, 수학, 컴퓨터공학의 융합학문입니다. 경제학에서 경제적 사고방식, 경제학원론, 시장경제와 공정거래 관련된 과목 등은

어 왔습니다. 단순히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담긴 서브텍스트, 평론가들의 칼럼을 참고하고 공연장이라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 양이 방대해지며 제가 설계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JTBC <썰전>에 출연했던 방송인 김범수 씨는 음악/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련 실무를 하게 된 밑바탕에 해외로 직접 나가 보고 들으며 경험한 것이 가져다주는 힘이 상당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중 <빅스트 투 노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의역하자면 '평범 그 주변 어딘가'가 되겠네요. 비록 작품은 정신병을 가진 엄마로부터 비롯되는 한 가족의 점진적인 해체에 관한 무거운 내용이지만, 저는 이 작품의 제목만 취해 긍정적인 의미로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개설된 전형적인 전공에서 벗어나 그것이 조금은 평범하지 않더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담아, 일단 도전해보세요. 사실 20대 초반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막연히 사회 과목이 싫어 이과를 선택해 공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저처럼,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상태로 전공을 결정하는 학생은 의외로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가지며 내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해 설계전공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설계전공 승인에서 떨어지더라도 그 준비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적지 않으니 선불리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설계전공을 준비하는 모든 학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제현상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경제학의 기본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학생설계전공의 커리큘럼에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금융경제학, 파생상품이론, 수리통계학, 금융계량경제학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거시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을 들었는데 이자율, 통화량, 환율 등 한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에서 재무관리와 투자론은 기업의 실물 프로젝트, 금융기관,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이론, 투자전략수립, 금융위험관리에 관한 기본 원리를 다룹니다. 금융파생상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이론은 선물옵션, 고정소득증권기초 과목을 통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재무관리를 수강했는데 기업의 자본구조와 세금감면효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기업의 가치를 원론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CAPM을 통한 금융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재무관리보다 투자론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룹니다. 제가 신청한 학생설계전공의 커리큘럼에는 회계학원론, 재무관리, 투자론, 선물옵션 투자론, 기업리스크관리, 금융리스크관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에서 선물, 옵션 이자율 파생상품 등의 가격결정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실해석학, 확률론입문, 금융수학 등의 수학을 과목에서 터득할 수 있는 수학의 기본원리를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치해석, 계산금융 등의 과목을 통해 금융파생상품의 가격결정 이론과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을 금융시장에서 구현하는 방법론을 배웁니다. 지난 학기에 금융수학을 수강했었는데 무차익원리(Arbitrage)와 무위험

세계 가정하여 BLACK&SCHOLES 공식을 통한 옵션의 가치를 배웠으며 ARCH, GARCH 모형에 대한 주제도 배웠습니다.

학부과정에서 금융공학을 이수할 수 있는 대학교는 아주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이 두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커리큘럼을 이 학교들의 커리큘럼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연계전공으로 금융공학을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에서도 참조할 수 있었지만 수학과목 중에서 계산수학 및 실습/응용통계학 및 실습에서 SAS를, 경영과목 중에서 통계자료분석에서 R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 금융공학 설계전공 과목구성

전공		과목구성
수학	필수	통계학입문, 확률론입문, 금융수학, 실해석학, 고등미적분학1, 고등미적분학2, 선형대수, 계산수학및실습, 미분방정식, 다변수함수
	선택	응용통계학및실습, 실해석학2
경제학	필수	계량경제학1, 금융경제학, 파생상품시장
	선택	미시경제학1, 수리통계학, 금융계량
경영학	필수	회계학원론, 재무관리, 투자론, 선물옵션투자론
	선택	금융리스크관리, 기업리스크관리

## ■ 설계전공을 신청하게 된 계기

이렇듯 제가 수학 단일 전공으로는 습득하기 힘들었던 융합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학생설계전공의 매력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학생설계전공을 계획하진 않았습니니다. 학생설계전공을 처음 접한 것은 2014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었습니다. 그 모집요강에 아직도 기억 남는 문구인데 “전공이 같다고 꿈까지 같을 순 없잖아요!”라는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저희 수학과에서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배들이 계시고 학생들도 각자 다른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설계전공을 통해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표출할 수 있고 또한 그 분야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간다고 느꼈기 때문에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면서 더욱 제 전공의 확신이 생겼고 타전공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점 또한 매력으로 다가와 저는 작년 5월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학생설계전공만의 장점

제가 생각하는 학생설계전공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타전공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장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들어야하는 전공 중에는 경영학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복수전공했다면, 저는 기업과 금융 지식 이외에 마케팅 및 경영전략에 대해서도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설계전공은 저의 분야, 저의 관심사에 맞게 타전공

의 과목을 수강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설계전공은 효율적인 복수전공과 같으며 대학생활에서 수강의 폭을 넓혀줍니다.

또한 복수전공보다 학생설계전공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수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설계전공인 금융공학에서 필수적으로 들어야할 수학/경제학 과목들 중에서 반 정도는 이미 1, 2학년 때 수강했던 과목입니다. 개정된 학칙을 참고해야겠지만 그래도 복수전공보다 학생설계전공의 학위를 이수하기 수월합니다.

그리고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면 자신만의 전공과 학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미 저의 전공에 금융공학 학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았고 저는 사실 변한 것이 없는데 학생설계전공만으로 저를 더욱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최초로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이 그 전공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미 금융공학을 설계했고 다른 학우께서 금융공학을 신청한다면 이미 승인받은 저의 커리큘럼을 따라야합니다. 임의로 그 학우가 다른 커리큘럼을 제시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만의 전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설계전공은 개인적으로 학업에 대해 노력하게 합니다. 사실 제가 제출한 커리큘럼으로도 학부로서 금융공학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저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더 노력해야함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의미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학생설계전공이 나에게 도움 된 점

직접적으로 학생설계전공이 제게 도움 된 점은 수강신청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공학이 경영학 과목을 포함하다보니 현재 저는 경영학사로 일시적으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영학 복수전공을 하지 않아도 제가 설계한 과목 이외에 경영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가을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많은 파견대학 중에서 경영/경제를 요구하는 전공이 많은데 학생설계전공으로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준비하는 자격시험 중에서 재무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미리 수강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 ■ 학생설계전공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

많은 학생들이 학생설계전공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으나 직접 신청하기는 조금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중도 포기를 할 수 없고 자기가 신청한 커리큘럼 이외에 교수님들께서 전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수 과목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학생설계전공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꼭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씩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가 느끼는 것은 대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중 학생설계전공은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에서 자신만의 전공을 갖고 졸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전공으로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하게 될 후배님들도 후배님들만의 멋지고 다양한 전공을 응원하며 학생설계전공의 수기를 마칩니다.

